

# 쌀때 사자... 코로나 장세 속 자사주 사들이는 오너들

대웅·대웅제약 경영진 4억 매수 GS 오너 4세대도 지분 매입 나서

책임경영, 주주가치 제고 의미 경영권 승계 및 그룹 비관도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상장사 오너일가가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다.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안정을 명분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주 취득은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와 주가 상승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석이다. 오너가의 최근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싼값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과 대웅제약은 지난 5일 경영진이 총 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 윤재춘 사장은 대웅 주식 1만 8825주(2억원)를, 전승호 사장은 대웅

제약 주식 1000주(1억원)를 사들였다. 이창재 부사장은 대웅 주식 9413주(1억원)를 매수해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대웅은 지난 3일에도 약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GS그룹 오너일가 4세대도 발빠른 지사주 지분 매입에 나섰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GS 보통주 3만3133주를, 허서홍 GS에너지 전무가 3만2000주를 지난 6일 취득했다. 이로써 둘의 지분율은 각각 2.01%, 1.68%로 늘었다. 이 둘은 지난달에도 각각 9만6632만주, 4만

7100주를 장내매수한 바 있다. 이날 KTB투자증권도 이사회에서 이달 안으로 자사주 30억원 어치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은 코로나19 이슈가 본격화되며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 1월 말 4년만에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정 사장은 신세계 보유주식 5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7억원에 이른다. 보유비율을 기존의 9.83%에서 10.34%로 늘렸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6일 관계사 한국테크놀로지 2억3000만 원 어치의 한국코퍼레이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관계사들의 추가 장내매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위지웍스튜디오도 지난달 말 10억원 어치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업계에선 이들의 주식 매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사주 매입에 나선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한 작은 회사임에도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실적개선과 흑자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주가가 실적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암묵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너가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너가의 자사주 취득을 경영 승계와 경영권 강화에 드는 비용으로 본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GS그룹 관계자는 “주가가 저렴한 상태이다 보니 개인의 투자 차원에서 주가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한 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은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부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매입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는 물량 부담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향후 실적 전망과 매입하는 주식 규모를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입한 자사주가 소각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물량으로 풀릴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효과가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다. 구체적으로 소각으로 이어질지, 회사 계정에 남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태희기자 alvin@metroseoul.co.kr

## “코로나19, 역설적 기회... 일등기업 주목”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10여년 만에 펀드 고객들에 서신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은 건강과 투자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펀드 고객에게 “인내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강 회장이 고객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지난 2011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이다. 서신에서 강 회장은 중국 일등기업의 입지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회복적 소비 수혜기업에 투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9일 펀드 고객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위기는 더할 수 없는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내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기회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선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일등기업의 입지 강화 효과다.

강 회장은 “코로나19는 전세계 공급과잉을 유발했던 수많은 부실기업들, 특히 중국의 한계기업들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해주는 촉매가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강건한 일등기업들은 시장지배력과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에셋플러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 될 소비, 특히 회복적 소비의 수혜를 입을 기업에 대한투자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고 말했다. 회복적 소비란 저축

되고 있는 소비가 상황이 되면 용암이 분출하듯 터져나오는 것을 말한다.

강 회장은 “소비절벽이라는 어두움 속에서도 미래 회복적 소비를 만들어 낼 기업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목격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펀드투자에 대한 인내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가격으로 보면 공포지만 가치로 보면 희망이 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십수년 이상 부채를 통해 만들어졌던 전세계 공급과잉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긍정의 시그널”이라면서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주는 바로 일등기업이다. 에셋플러스는 그 일등기업들과 함께하며 축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대림산업

##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병원시설 확보

대림산업

상가 3층 메디컬 클리닉 16실 예정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에 병·의원 시설이 들어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상가3층에는 메디컬 클리닉 업종(16실) 개원이 예정돼 있다. 권장업종은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안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치과 등이다.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상가단지

/정연우기자 ywj964@

지하 6층~지상 39층, 3개동, 859가구가 지어진다. 전용면적 59~84㎡ 아파트 432가구와 전용면적 26㎡ 오피스텔 427실로 구성된다.

상가 고층에는 아파트 859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인근에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급전점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홈플러스 급전점이 있으며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오는 2023년 개통한다. 금천구와 강남권을 잇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이미 개통해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30분이면 가능하다.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60% 육박”

서울 전분기비 3%p 상승 경기 71.5%, 인천 67.4%

1분기 기준 서울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전세가율은 59.9%로 지난 분기(56.9%) 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12·16 부동산대책 전후인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직방은 전세가격 영향보다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조정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된 지역과 단지 위주로 거래흐름이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했다.

경기지역 역시 1분기 전세가율이 71.5%로 4분기(68.2%) 보다 3.3%포인트 올랐다. 반면 인천은 지난해 4분기 70.2%에서 올 1분기 67.4%로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1분기 전세가율이 각각 72.6%, 73.9%로 4분기보다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 움직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신축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 신축과 기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올 1분기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신축아파트 전세가율은 1분기

65.0%로 지난해 4분기(54.2%)보다 크게 상승했다.

전세 실거래 가격이 1분기에는 하향 조정을 보였지만 매매 실거래 가격도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올랐다.

직방은 12·16대책 발표 이전에는 주요 지역의 가격 선도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였다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강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로 고가 아파트가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기존 아파트도 4분기 가격 상승 부담으로 급매물이나 저렴한 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전세가율이 4분기 56.9%에서 1분기 59.9%로 상향 조정됐지만 신축아파트에 비해서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 “모바일로 주총 정보 받으세요”

예약원,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이하 전자고지서비스)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서비스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정, 안건, 전자투표방법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년 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전자고지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결권 등에 관한 권리행사정보를 기존 우편통지 방식에서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카카오페이의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와 연계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를 알람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예탁결제원이 부담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